

슬라브 민간신앙(Folk Beliefs) 연구 - ‘미신(Superstition)’을 중심으로

김형섭*
중앙대학교

Abstract

A Study of Slavic Folk Belief : Superstition

Kim, Hyongsup

Slavs are superstitious people. Historically, the Slavs, who believed in the popular religion of polytheism, accepted the Orthodox Church from the Byzantine Empire and were placed in an environment of dual faith(dvoeverie). In this process, a unique culture emerged through the fusion of polytheistic popular beliefs and the monotheistic doctrines of the Orthodox Church. Folk beliefs are maintained by reflecting Christian elements, or Christian doctrines absorb elements of popular beliefs, resulting in the emergence of unique beliefs and lifestyle customs unique to the Slavs. This integrated form of tradition and customs is still vividly alive in the daily lives of Slavs. Among them, superstitious thinking and lifestyle are very characteristic.

These superstitious behavior patterns and lifestyles are formed by social, cultural, and religious factors with the purpose of counteracting the influence of 'supernatural forces' that humans cannot predict or respond to. The Slavs, who had a natural environment filled with vast lands, rugged mountainous regions, and rough canyons and rivers,

* 인문대학 유럽문화학부(러시아어문학전공) 부교수 / E-mail: kimhs10@cau.ac.kr
- DOI: <http://dx.doi.org/10.15755/jfs.2024.70.639>

were the subject of fear and awe of natural disasters and wild animals. This phenomenon was thought to be the anger or jealousy of gods or spirits, and specific rituals were developed to appease this. This 'supernatural force' that mankind fears has existed since the Mesopotamian civilization, and is considered the so-called 'evil eye'. The evil eye is very closely related to superstition and has been used as a means of controlling a people's society and culture. In this paper, we will analyze the superstitious beliefs and actions of Slavs based on the 'evil eye'.

Keywords: superstition, evil eye, folk belief, dvoeverie, Christianity

주제어: 미신(迷信), 악의 눈(악의), 민간신앙, 이중신앙, 기독교

I. 들어가며

슬라브인은 험난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온 민족이다.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고대인들은 통제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특정 의식의 반복과 자연현상의 우연한 패턴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러한 믿음과 의식의 반복이 미신과 미신적 의식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슬라브인은 미신을 잘 믿는 민족이다. 슬라브인은 다신교적 전통문화와 일신교적 기독교 문화가 혼합된 이중신앙(двоеверие) 때문에 미신적 배경에 익숙해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의식을 행한다. 언어적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로 이름을 묻는 표현은 "Как вас зовут?"이다. 직역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부릅니까?"이다. 상대의 '이름(имя)'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슬라브인의 이교적 전통에서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identity)'이자 '본질(essence)'이기 때문이다. 특정인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힘/지배력(power)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독일어에서도 "Wie heißen Sie?"라고 이름을 묻는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How do people call you?"이다. 실제 이름이 아닌 별명, 호칭, 또는 은명(隱名, тайные имена)이나 수호명(守護名, обереговые имена)을 사용하는 것은 불길한

영혼이나 악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 믿었다. 상대의 이름을 간접적으로 묻는 간접적 접근방식은 이름의 신성한 힘에 대한 고대 신앙, 공동체적 정체성에 대한 문화적 강조, 예의와 관계 역학을 증시하는 언어 전통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고대 문화에서 시작된 Evil Eye의 개념이 슬라브인의 전통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실현되는지 알아보고, 역사적-문화적 접근을 포함한 문화 인류학적 해석과 상징성과 마법(magic) 수단을 고려한 해석, 심리학적 해석, 그리고 기타 사회적 기능을 고려한 해석을 바탕으로 슬라브인의 미신과 관련된 문화와 언어, 즉 속신어(俗信語)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장에서는 미신의 정의와 기원, 고대 문명부터 존재했던 'Evil Eye'의 개념, 그리고 다양한 학자들의 미신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이론과 방법론적 접근에 대하여 살펴보고, III 장에서는 슬라브인의 전통에 바탕을 둔 다신교적 민간신앙과 비잔티움 제국으로부터 수용한 일신교적 기독교(Christianity)의 융합적 관계에서 나타난 이중신앙을 바탕으로 'Evil Eye'와 유사한 개념은 없는지 살펴보고, 기존의 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슬라브 미신적 행위와 의식, 그리고 속신어를 분석할 것이다.

II. 미신의 기원과 발전

2.1. 미신의 정의와 기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미신(迷信)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믿음. 또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 이러한 정의와 개념은 과학과는 명백한 차이점을 가지지만, 종교와 미신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종교'의 정의를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로 정의하면서, 애니미즘, 토테미즘, 물신 숭배를 비롯하여 샤머니즘, 다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세계 종교에 이르는 제도적-비제도적인 체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종교와 미신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의와는 달리, 종교와 미신을 구분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신성하거나 성스러운 것을 중심으로 한 구조화된 믿음과

실천 체계'이지만, '미신은 초자연적인 힘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진 비합리적인 믿음이나 관행'이며, 형식적인 교리가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Durkheim, 2016; Vyse, 2014)

'미신'을 의미하는 *superstition*은 접두사 *super-* "beyond, ~넘어"와 어근 *stare-*(<PIE *sta- "stand, 서다, 있다")로 구성된 단어이다. (Online Etymology Dictionary, 이하 OED)²⁾ 올바른 믿음, 즉 종교를 의미하는 '*religio*'와 대조적으로 '*superstitio*'는 글자 그대로 "~너머에 서 있는(standing over/beyond)", "신들에 대한 지나친 공포심(excessive fear of the gods)"을 의미하며, 주로 '종교적으로 과도한 잘못된 믿음'에 대하여 사용되었다.(오승철, 2009)³⁾ 초기 로마시대에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다가 점차 '순수한 숭배(proper worship)'를 의미하는 *religio*와 대비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⁴⁾

미신의 기원은 인류 초기부터 예측할 수 없는 자연현상과 통제할 수 없는 번개, 지진, 홍수, 폭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항하여 살아온 인류의 생존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겨났다. 자연현상을 이해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의 부재로 '초자연적 존재나 힘'을 상정(想定)하고 의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번개, 지진, 가뭄, 홍수 등의 자연현상이나 재해는 초기 인류에게 두려움과 경외(敬畏)의 대상이었다. 초기 인류는 이러한 현상을 신이나 영혼의 분노로 해석하고 이를 달래기 위한 의식으로 발전시켰고, 어떤 사건이나 행동을 결과와 결부시켜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의 패턴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의식 이후에 사냥에 성공하거나 비가 오면 거행된 의식이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고 반복적으로 의식을 행하였고, 이렇게 반복된 의식과 의례는 집단의 일체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며 위협적인 환경에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종교적 의식과 미신적 관습으로 발전하였다.(Frazer 1922; Knowlson 1934; Martin 2009; Vyse 2014, 2020)

미신은 '불확실성'에 대처하려는 사회적 노력이나 수단을 의미하는 문화적 해석도 가능하다. 미신은 인지된 협박이나 공포 등에 대한 방어기제 역할을 하거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인류학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패턴과 통제의 필요성에서 미신이 등장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OED, Vyse 2014, Benveniste 1999, pp. 323-324, 최화선 2001)

2.2. 'The Evil Eye'의 개념5)

'The Evil Eye'의 개념은 특정 사람이 시기와 질투로부터 비롯되는 '악의적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고대의 믿음으로부터 유래하였다. 이러한 믿음은 지중해, 중동, 남아시아와 같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특별한 믿음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불길한 시선은 육체적-정신적 질병, 불행, 심지어는 죽음 등의 해악(害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물, 곡식, 재산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다.(Berger 2012; Pagliarulo 2023) 특히 미신은 부정적인 기운에 가장 취약한 갓난아기, 임산부,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 고대 그리스, 로마, 그리고 성경과 같은 역사적 문헌에서도 이러한 미신의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 예를 들자면, 짙은 색깔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환경에서는 푸른색의 눈을 가진 사람을 Evil Eye의 소유자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Evil Eye를 회피하거나 빗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적이나 주술과 같은 미신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Frazer(1922)는 Evil Eye의 개념은 슬라브 전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에 퍼져있는 미신이며, 시기심이나 질투심, 악의와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시선(sight)을 통해 전달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초자연적 원인(supernatural causes)에 의한 불행을 설명하고자 한 인간의 시도가 미신이라 하였다.

The Evil Eye에 대한 믿음은 자만이나 자랑과 같은 경솔하고 지나친 행동을 제어하는 사회 통제적 기능도 수행한다. Frazer(1922)와 Radcliffe-Brown (2004)과 같은 인류학자들은 사회적 규범을 유지하고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키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Frazer 1922, pp. 36-120)

악의적 시선(Evil Eye)에 대한 방어 수단은 부적, 제스처, 그리고 문화적 의식이 있다. 예를 들어, 나자르(Nazar, 터키와 그리스에 흔한 푸른 구슬)는 부정적 영향을 굴절시켜 해를 막아준다고 믿었다.⁶⁾ 이탈리아의 코르니첼로(cornicello, 뿔 모양의 부적)와 눈가에 바르는 검정색 화장떡(black kohl)⁷⁾, 기름이나 물 등은 대표적인 방어적 수단이었다.(Berger 2012; Dundes 1992)

상기한 부적 이외에도 침을 뱉거나 손으로 특정한 모양을 만듦으로써 the Evil Eye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나 의식이 바로 미신적 행위, 주술적 의식인 것이다. 예를 들어, 시기심에서 나오는 부정적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공이나 행운을 경시하는 행위, 다시 말해, 겸손한 태도도 자기 보호의 또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Berger 2012)

2.3. 이론적 접근

미신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는 문화인류학적, 심리학적, 사회종교학적 이론을 토대로 발전해 왔다. 미신은 일반적으로 원시 사회에서 발생한 애니미즘(Animism)의 산물로 간주되어 왔다.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없어 이해하지 못할 때, 초자연적 존재나 영혼의 작용으로 설명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Evil Eye의 개념이 생겨났다.(Tylor 1871) 심리학적 접근은 인지적 오류(cognitive bias)와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미신을 해석한다. 행동심리학자인 스키너(Skinner, 1948)는 비둘기가 보상과 행동의 상관관계를 오해하면서 '미신적 행동(superstitious behavior)'을 보인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이러한 우연한 일련의 사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못 해석하면서 미신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vil Eye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표현이나 행위, 사회적 기능은 민족적-지역적 특징을 반영하여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남슬라브 문화권에서는 дурное слово '사악한 말'을 의미한다. 동슬라브 문화권에서는 дурной глаз (=сглаз) '사악한 눈'으로 각각 표현되는 것은 각 지역의 특수성과 다른 문화의 영향력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Evil Eye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의식, 미신행위 등은 행위의 규범을 형성하면서 그 지역이나 민족의 사회적-문화적 통제성을 갖는다. 칭찬 회피, 시기, 질투, 공공연한 악의적 표현 등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Evil Eye의 개념은 현대적인 해석을 갖기도 한다. 현대적 실생활에서는 '부정적인 에너지' 또는 '정신적/심리학적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류학자 Frazer(1922)는 자신의 저서 the Golden Bough에서 공감적 마법/주술(Sympathetic magic)⁸⁾의 개념에 대하여 소개한다. 공감적 마법은 우리 인간의 사고체계(system of thought)로서 주술적 의식은 사람, 사물, 행위 사이의 '은밀한 공감대(secret sympathies)'를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이 주술 형태는 '유사성의 법칙(Law of Similarity)'과 '전염의 법칙(Law of Contagion)'에 근간을 두고 있다.

첫 번째 법칙인 '유사성의 법칙'은 말 그대로 "like affects like"의 유사성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 최종 목표물(target)을 닮은 대상에 행해진 행위는 실제 최종 목표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으로 본질적으로는 '모방이 실재를 실현 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 전형적인 예가 바로 부두(Voodoo) 인형이다. 해치고 싶은 사람을 상징하는 부두 인형에 해를 가하면 그 사람이 해를 입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슬라브

인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대표적인 축제인 마슬레니차(масленица)의 행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지루한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이 축제의 끝에는 짚으로 만든 인형을 불로 태우는 행사를 거행한다. 겨울을 상징하는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고 불태워 버리는 행위는 낡은 것, 추운 겨울을 보내고 새롭고 따뜻한 봄을 바라는 상징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흔한 실례는, 러시아 사람들은 콩으로 피부에 난 사마귀를 문지른 후 땅에 묻는데, 이러한 의식은 질병이나 고통을 다른 대상으로 옮기게 하여 치유하는 가장 흔한 전통이며 관습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염의 법칙(Law of Contagion)이다. 이 법칙은 '한 번 접촉한 대상은 영원히 정신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땅에 묻거나 태움으로써 저주나 불행으로부터 보호하는 흔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서슬라브 폴란드인의 전통에 따르면, 처음으로 자른 유아의 손톱이나 머리카락은 나무 아래에 묻거나 태워 버리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 나무가 쑥쑥 자라듯이 그 아이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나무의 생명력과 어린아이의 생명을 접촉하여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주술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는 신성한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나 우유를 농작물에 뿌려 깨끗한 물의 에너지를 전달하여 풍년을 기원한다.

상기한 두 가지의 공감적 마법/주술 행위는 슬라브 전통의 미신적 행위나 주술 의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슬라브인의 전통과 미신은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 주로 환자의 치유의식, 가정이나 개인의 보호 의식, 풍작을 위한 농경 의식, 퇴마의식 등으로 사용된다.

고대사회로부터 전해진 Evil Eye의 개념을 역사-문화적 또는 문화인류학적 접근이라고 전제하고 Frazer의 공감적 마법을 토대로 슬라브 미신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심리학적 접근은 사람의 심리상태를 반영한 표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미신은 개인적 오류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체계 내의 사회현상이라는 전제하에 사회적 규범이나 문화적 기호의 관점에서 미신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미신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박혀 내려오고 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만 고대 슬라브인의 정신세계와 문화를 현재와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슬라브인의 미신에 대한 믿음과 행위는 전통-문화적 기능, 의사-소통적 기능, 감성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III. 슬라브인의 민간신앙

3.1. 슬라브인의 민간신앙과 이중신앙 (двоеверие)

슬라브인들이 공유하는 전통과 문화는 민간신앙과 이중신앙의 융합적 성격을 통해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중신앙은 다신교를 숭배하는 이교도적 전통과 일신교적 기독교가 혼합된 상태를 의미한다.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민간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공존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미신적 사고나 의식이 발생하였다.

슬라브 민간신앙의 바탕은 자연 숭배, 주술, 신화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 숭배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과 신성한 존재가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는 믿음이 생겨났고, 다양한 자연 요소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거나 집안을 보호한다고 여겨진 도모보이(домовой) 등과 같은 신화적 존재를 숭배하였다.

9~10세기 기독교 수용 이후, 기독교는 기존의 민간신앙을 억압하고 근절하기보다는 기독교의 교리와 서사로 대체하거나 융합하려고 하였다. 이교도 신들과 신화적 행위가 기독교 성인이나 의식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교회는 지속되는 이교적 관습을 '미신'으로 간주했지만, 이러한 전통적 관습은 민중들 사이에서는 신앙적 실천으로 행해졌고, 깊이 뿌리박힌 전통적 의식과 믿음은 슬라브 사회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화적 혼종성과 사회적 연속성은 슬라브인들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Ivanits 2015, Bartlett 1999, Bernshtam 2016)

3.2. 슬라브 문화 속 'сглаз (the Evil Eye)' 개념

슬라브인의 문화 속에도 the Evil Eye의 개념은 그대로 적용된다. 러시아 민간신앙에 따르면, 사악한 눈(дурной глаз, сглаз, призор)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누군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악영향을 끼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동일한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을 가진 러시아어의 표현은 다양하다. 예를 들자면, сглаз, не-взгляд, призор, порча, дурной глаз, наговор, чернота, приворот/отворот, дурной умысел, завистливый взгляд 등이 있다.⁹⁾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예방법으로는 씻거나 마시는 물에 속삭이거나 마실 수 없는 물에는 마늘이나 소금을 던져 넣었다. 또는 물에 달걀을 풀고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젓는 행위도 하였다. 특히, 출산이나 결혼 관련 미

신적 행위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신부가 the Evil Eye에서 보호받기 위하여 베일을 쓰거나 출산 중인 여성을 숨기고, 신혼부부를 낚시 그물로 덮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또 흔히 말하는 입바른 소리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과도한 칭찬이나 입바른 소리를 하면 시기나 질투심으로 사악한 시선의 주목을 받아 불행해진다는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러시아의 "ни пуха, ни пера!" 표현은 가장 잘 알려진 중 하나로 러시아 사람들의 문화적, 정서적 배경을 잘 보여준다. 시험이나 공연, 사냥 등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에게 행운을 기원하는 표현으로 сглаз의 개념과 그에 대한 보호적 수단이 언어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좋은 실례이다.

(1) A: Завтра у тебя будут экзамены. Ни пуха, ни пера!

(내일 시험이지! 시험 잘 봐!)

B: К чёрту!

(악마한테나 가라!)

이 표현은 사냥꾼들 사이에서 사용된 표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пух는 짐승의 부드러운 가슴털(down)을 뜻하며, перо는 깃털(feather)을 뜻한다.¹⁰⁾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부드러운 털도, 깃털도 (가져오지 마라!)"이다. 성공적인 사냥감 포획을 기원하는 반어법적 표현이다. 고대 슬라브 문화에서는 성공이나 행운과 같은 '긍정적인 말'을 직접 언급하면 소위 말하는 악령이나 불길한 영혼들이 시기, 질투를 하여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맥락은 소위 the Evil Eye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불길한 눈길/기운(the Evil Eye, сглаз)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소망이나 희망, 기대, 바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A: Ой, какой у вас красивый ребёнок!

(와, 아이가 정말 이쁘네요!)

B: На тебе сглаз, чтобы его никто не сглазить!

(눈길 주지 마세요, 우리 아이 부정타지 않게요!)

표현대로 해석하면, на тебе лежит сглаз, чтобы его никто не сглазить! "불길한 기운은 당신 위에 놓여있다. 우리 아이가 저주받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나 번역은 한국어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러시

아 사람의 문화와 정신세계를 이해하여 상황에 맞는 고정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옷 안쪽에 옷핀 달기

Evil Eye나 저주 등을 막기 위하여 일부 슬라브인들은 옷 안쪽에 핀을 달고 다녔다. 이는 붉은색 실이나 말갈기 털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과 유사한 보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3.3. 슬라브인의 미신적 전통과 행위

3.3.1. 역사-문화적 기원에 기반한 미신

(4) “тъфу-тъфу-тъфу, сплюнуть через левое плечо” (툼, 툼, 툼, 왼쪽 어깨 너머로 침 뱉기)

고대 슬라브 신화에서는 사람의 왼쪽 어깨 위에 사악한 영혼/악마(злые духи)가 살고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불길한 기운이나 영혼을 쫓아내는 주술적 행위로 왼쪽 어깨 너머로 침을 뱉는 행위는 슬라브인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슬라브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기독교 수용 이후에도 다소 약화 되기는 했지만, 슬라브인의 민간신앙이나 민중 문화 속에 깊숙이 뿌리내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슬라브인의 문화에서 숫자의 개념은 매우 신성하고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슬라브인은 숫자 3, 7, 9를 행운의 숫자, 또는 보호의 숫자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의 예들은 숫자의 상징성과 슬라브인의 정신세계와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5) “Семь раз отмерь, один раз отрежь” (일곱 번 측정하고, 한 번에 잘라라!)

숫자 7은 '조화'와 '행운'을 가져오는 주술적 의미를 갖는다. 기독교 수용 이전의 슬라브 전통에서는 숫자 7은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하신 7일, 승배의 대상이었던 달의 7가지 변화 모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술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6) "Бог любит троицу." (신은 삼세변을 좋아하신다.)

러시아인의 정신세계에는 좋은 일이나 의미 있는 일은 숫자 3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러시아인에게 숫자 3은 가장 완벽한 숫자, 완성(завершённость), 충만(полнота), 채움을 상징한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때, 세 번을 시도하거나, 권유나 사양할 때, 그리고 용서도 세 번을 반복해서 구한다. 포옹이나 볼을 맞대는 인사를 나눌 때도 세 번을 반복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문화는 기독교 수용 이후에도 슬라브인의 생활 속에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성부(Бог Отец), 성자(Бог Сын), 성령(Бог Дух Святой)의 삼위일체는 완벽함, 온전함의 상징으로 러시아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7) "На девятом небе" (매우 행복하다.)

동슬라브인들은 9단계의 하늘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중 최고 높은 하늘이 9번째 하늘이다. "아홉 번째 하늘에서"라는 표현은 '매우 기쁘고 행복하다'는 의미이다. 동의어로 на седьмом небе "일곱 번째 하늘에서"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숫자 9는 신비주의, 완전함 등을 상징하는 숫자로, 폭풍이 몰아칠 때 9번째 파도가 가장 크고 강력한 것에 비유된다. 더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교회적 전통이나 문화에 따르면, 사람이 죽은 후 9일째 되는 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죽은 고인을 기억하고 영혼이 떠나는 것을 상징하는 날짜가 바로 망자가 사망한 지 9일째 되는 날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8) 문지방 타부

슬라브인들에게 문지방은 외부 세계의 위험과 가정 내의 안전이 만나는 경계선이다. 이러한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인사를 나눈다거나 물건을 건네는 행동들은 부정타기 쉬운 행동이라 여겨왔다. 가정을 보호하는 정령인 도모보이의 힘이 미치는 곳도 문지방이며 외부의 부정한 영향이나 위험이 들어오는 곳도 문지방이기 때문이다. 이러나 미신적 행위는 고대 이교도적 믿음과 의식에 기인한다.

3.3.2. 상징성(Symbolism)과 마법의 수단 따른 행위

- (9) "Не свисти - Денег не будет."
(휘파람 불지마라 - 돈 안들어온다.)

위의 속담은 슬라브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휘파람을 밤에 불거나 집 안에서 불면 '귀신 나온다'는 또는 '복 나간다'는 행운이나 재물의 존재 여부를 의미한다. 휘파람은 바람을 상징하며, 언제라도 재물과 행운을 날려버릴(унести) 수 있는 바람을 의미하며, 가난과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Propp 2012) 이는 휘파람이 바람을 상징하고, 동일 종류의 물건이나 대상, 또는 그 일부가 동종의 물건이나 대상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주술방법으로, Frazer의 공감적 주술(sympathetic magic)의 개념과 일치한다.

슬라브인의 미신은 주술적 원리(магические принципы)에 따라 공감적 주술 행위(симпатическая магия)는 접촉의 주술행위(контактная магия), 그리고 보호적 주술행위(защитная магия) 등으로 나눈다.

공감적 주술행위는 동종요법(homeopathic magic)과 같이 "like affects like"의 개념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쿠팔라의 밤(Kupala Night) 축제에서는 젊은이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뛰어넘는 행위를 반복한다. 이는 정화(purification)와 활력(vitality)을 상징하는 행위로 개인에게는 건강과 활력을, 집단에게는 풍작과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주술적 방법으로 왁스나 반죽으로 인형을 만들어 치유 목적으로 사용한다. 만들어진 인형은 아픈 사람을 상징하고 왁스를 녹이거나 반죽을 주무르며 마사지하는 행위는 환자의 질병이나 통증을 인형으로 전달시켜 치유하는 민간요법이다.

접촉의 주술 행위는 부두 인형처럼 특정 대상을 저주하거나 특정 인물의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주술에 이용한다. 특정인의 손톱이나 머리카락은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 땅에 묻어 저주를 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Tsonkova 2015) 또한, 의복은 주술적 통로로 사용된다고 믿어, 생일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 날에 입었던 옷은 주술적 힘을 갖는다고 믿었다. 이렇게 특별한 날에 입었던 옷은 아이의 건강이나 성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Sedakova 2016)

- (10) 식기류(포크, 나이프, 스푼)가 떨어지면 손님이 온다.

포크(вилка)와 숟가락(ложка)이 떨어지면 여자 손님이 오고 반면에 칼(нож)이 떨어지면 남자 손님이 온다는 믿음이다. 이것은 식기의 문법적 성(gender)에 따른 해석이다.

(11) "Сломать нож - к разлуке"
(칼이 망가지면 이별한다.)

칼은 단합, 하나(единство), 보호를 상징한다. 이러한 상징물인 칼이 부러지거나 망가지면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이별을 예고한다고 믿었다. 이것은 칼이 외부의 힘이나 불길한 세력을 방어하는 도구로서 가정을 보호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12) 징후로서의 새

새는 슬라브인의 미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가 집안으로 날아들어 오면 죽음을 부르는 불길한 전조현상으로 해석된다. 반면 몸에 새똥을 맞거나 소유물에 새똥을 맞으면 역설적으로 재물복과 행운의 징후로 여긴다. 이러한 해석은 상징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새똥을 몸에 맞는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사람들은 드물게 일어나는 일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다. 특히, 새는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지, 또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라고 받아들이면서 드물게 일어나는 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축복이나 재물을 상징한다고 믿었다. 많은 문화권에서 새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메신저라 생각하여 신성한 하늘나라와 세속의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이며 성스러운 연결고리라 생각하였다. 새똥은 하늘나라의 강력한 권위자로부터의 특별한 기대하지 않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농경 사회에서 새똥은 자연 비료로 사용되는 이로운 것으로 해석되지만, 그것보다는 드물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을 좋은 일로 재구성하려는 심리학적 재해석의 노력이 보이는 미신이라 할 수 있다.(Vyse 2014, Boyer 2001)

(13) 결혼 미신

슬라브인들은 전통적인 혼인예식 기간동안 신부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슬프게 울어야 한다고 한다. 게다가, 혼인 전날에는 신랑 신부는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불행을 불러오는 불길한 행위라 여겨졌다. 또한 곡식이나 동전을

신혼부부에게 던지는 의식을 행하는데 이는 재물과 다산을 상징하는 행위이다. 결혼 전에 신랑 신부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결혼 전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결혼생활과 결혼 후에도 가족들과의 좋은 관계를 약속하거나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곡식이나 동전을 신혼부부에게 뿌리거나 던지는 행위는 다양한 문화에서 행해지는 보편적인 의식행위라 할 수 있다.

3.3.3. 심리학적 양상을 반영한 미신행위

미신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공포를 제어하기 위한 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정한 상징적 주술 행위나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약화시키는 심리적 기능도 담당해 왔다. 말리노프스키는 트로브리안드(Trobriand) 섬의 원주민을 대상으로 주술적 행위와 의식, 미신을 연구했는데, 석호(lagoon)에서 낚시할 때와 바다 멀리 나가 낚시를 할 때의 주술적 의식이 다르다고 하였다. 석호는 비교적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여 특별한 의식을 치르지 않는 반면, 깊은 바다낚시를 떠날 때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험난한 파도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 때문에 주술적 의식을 치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술적 행위는 근심과 걱정, 불안을 감소시키는 심리학적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Malinowski 2013)

- (14) "Не возвращайся, если что-то забыл"
(무엇인가 잊었어도 돌아오지 마라!)

길을 떠난 후 잊은 물건이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행위는 계획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계획이나 일정에 변화를 주는 사건이다. 계획된 일이나 순서, 리듬을 깨는 행위로 불안감을 증가시켜 모든 일을 망칠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지적하는 표현이다.

- (15) "Садиться на угол стола - к семи годам без замужества"
(식탁 모서리에 앉으면 7년 동안 결혼을 못한다.)

이 미신은 화목과 행복을 상징하는 밥상, 식사와 관련된 식사 의식이며 예절이다. 식탁 예절이나 규칙을 어기는 일은 어른에 대한 무례함으로 해석된다. 특히, 모서리에 앉으면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젊은이들

에게 음식이 손에 쉽게 닿을 수 있는 자리를 양보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가족 간의 배려와 사랑은 식사 예절을 통해 공고해지고 세대와 세대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16) 가족이 길을 떠난 후에 물을 뿌리는 행위

세르비아와 발칸반도에 정착한 남슬라브인은 여행이나 출장, 특정한 목적으로 집을 떠나는 경우, 당사자가 집을 나간 후에 '바닥에 물을 엮질러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 이러한 행위는 땅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물의 기능처럼 좋은 영향력을 가져온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물의 자유로운 유동성처럼 행운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라는 의미라고 한다. 이러한 미신적 행위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덜 느끼게 하였다. 물은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흔한 물질이지만, 가장 유동적이고 자연스러운, 즉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물질이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자신의 형체는 없지만 담는 용기의 모양을 따르는 가장 자연의 법칙을 잘 지키는 물질이라 할 수 있다. 여행을 떠난 사람이 물처럼 모든 일을 순조롭게 마치고 잘 귀가하라는 바람으로부터 나오는 미신적 행위라 할 수 있다.

(17) 생일 미리 축하하기

슬라브인들은 생일을 실제 날짜보다 일찍 축하하는 것은 불행을 부른다고 생각한다. 이른 생일 축하는 생명을 단축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18) "Если чёрная кошка перебежала дорогу - к неудаче"

검은 고양이가 내 앞에서 길을 가로질러 갔을 때, 불길한 징조로 여긴다. 검은 색은 마녀나 저승사자, 저승세계의 힘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슬라브 전통에서 검은 색은 악마나 사악한 영혼을 자극하여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검은 고양이가 건너간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먼저 지나가도록 한 후에 지나가는 것이 불행을 피하는 길이라 여겼다.

(19) 깨진 거울

거울에 대한 미신과 주술적 에피소드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다. 슬라브인들에게도 거울은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물건이다. 물과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주기 때문에 자신을 돌이켜보는 기회를 부여하고, 외부의 불길한 영혼이나 악귀를 반사하여 저주를 보낸 사람에게 다시 보내는 기능과 역할을 한다. 거울은 저승과 이승을 연결해 주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기때문에 거울이 깨진다는 것은 이승과 저승의 연결고리가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 깨진 거울을 보는 것 역시 불행을 부르는 나쁜 행위라 믿고 있다.

3.3.4. 윤리적-사회적 기능의 미신행위

미신은 사회적 규범(norms)을 형성하고 도덕적 기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믿음과 관습은 공동체의 소속감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가치를 공유하게 한다. 이러한 관행을 따른다는 것은 문화적 규범을 공유하는 것이고 세대와 세대가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수단인 것이다.(Boyer 2007)

- (20) "Не ешь с ножа - злым будешь"
(칼로 먹지 마세요! 사악해져요.)

이 표현은 식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예의와 존중을 교육하는 도덕적 기준이자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칼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공격성을 상징한다. 때로는 외부의 불길한 영혼을 막아주는 보호 도구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칼을 선물하지 않는다. 단돈 1루블이라도 받고 팔아야 한다. 그리고 칼을 전달할 때, 직접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식탁이나 특정 장소에 놓아 필요한 사람이 집어 들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날카롭고 위험한 칼로 음식을 잘라 칼로 찌어 먹거나 칼을 사용하여 음식을 입에 넣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게 생각한다. 혹시라도 칼에 찔리거나 베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규범, 문화적 관행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할 수 있다.

- (21) "Соль рассыпать - к ссоре"
(소금을 쏟으면 다툼이 생긴다.)

고대사회부터 소금은 매우 중요한 물품이었다. 나쁜 영혼이나 영향으로부터 보호

해 주는 부적의 역할도 한다. 하지만, 소금은 늘 풍족하지만은 않았고 예전에는 세금으로 소금을 거두어들이는 등 가치가 매우 높은 물품이었다. 역사-언어학적으로 보면, 고대 로마의 군사들에게 지급했던 임금이 Salarium인데 이는 소금을 사는데 사용한 소금 돈(соляные деньги)라는 뜻에서 유래되었고, 현대 영어의 Salary '임금'과 동일 어근 단어이다. 이렇듯 슬라브 세계에서도 소금은 비싸고 가치가 높은 물품이었고 이 귀한 물품을 쏟거나 흘리게 되면 다툼과 갈등이 생긴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OED) 슬라브인들에게도 소금은 생활필수품이자 가치가 높은 물품이었음을 방증해 준다.

(22) "Не передавай пустую посуду"

(빈 그릇을 주지 마라!)

빈 그릇, 특히 빈 양동이를 전달하는 것은 '빈곤'과 '상실'의 전조(предзнаменование)라 여긴다. 이러한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 물이라도 채워서 건네주어야 한다. 누군가 빈 그릇을 건네줄 때는 "Не давай пустую, лучше положи туда что-нибудь"라고 말한다. 이것은 상호 간의 에너지 교환을 의미하며 빈 그릇은 무엇인가를 잃는 상실을 상징한다. 이러한 행위 역시 지역공동체나 이웃과의 사회적 규범이나 관행, 예의범절을 지키고 문화를 공유하는 그룹 내의 최소한의 에티켓이며 의사소통 방식이라 할 수 있다.

IV. 나가며

슬라브 문화에서 미신은 신화, 철학, 심리학, 사회학을 통합하는 복잡한 문화현상이다. 미신은 과거 세대의 세계관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 전해진다. 이중신앙 체계를 가지고 살아왔던 슬라브인의 정서와 전통문화 속에는 미신과 미신적 주술 행위는 그다지 낯설지 않았다. 미신은 이러한 익숙함으로부터 집단적 무의식이 되었고 이러한 집단 무의식은 현재 슬라브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슬라브인은 자연현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였는데 이러한 믿음이 미신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믿음은 Evil Eye의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 등의 주술적 행위와 의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슬라브인의 미신을 고대의 'Evil Eye'의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Frazer의 공감적 마법(sympathetic magic)에 근거하여 슬라브인의 미신적 행위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문화인류학적 접근과 상징성 및 마법이 수단을 활용하여 슬라브인의 미신을 통찰해 보았고,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적 접근과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슬라브인들의 미신에 대한 믿음과 행동 양상은 기독교 수용 이후에도 혼합적 형태로 문화적 전통 곳곳에 깊게 뿌리박혀 있고 세대와 세대를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류 보편적인 미신적 사고와 행위가 존재하지만, 슬라브인의 자연에 대한 표현과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야 한다는 전통이나 사회적 규범 및 예절을 중시하는 미신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는 첨단과학 및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할지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감 해소는 전통문화 깊이 뿌리박힌 미신이나 미신적 주술 활동이 역할을 해 주리라 판단된다.

슬라브인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미신적 의식을 행하고 있다. 하지만 본 고에서는 매우 제한된 표현들만 다루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보다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는 다음의 연구 주제로 남기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어: 미신 <검색일: 2024.10.17.,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sLink>>
- 2) Superstition,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s://www.etymonline.com/search?q=superstition>>.
- 라틴어 동사 supersto > superstare (present infinitive form) > 이 동사의 과거분사형에서 명사 superstio가 파생되었다. 의미는 "~넘어서, ~ 위에 서있는" > 지나치고 왜곡된 숭배행위를 의미하게 되었다. cf. religio (종교) vs. superstio (미신)
- 3) '종교'와 '미신'의 차이는 논외의 주제이지만, '종교'는 초과학적이고, '미신'은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종교의 핵심을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에 대한 믿음과 숭배'라고 정의하며 종교와 미신의 구분하지 않는다. 종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오승철, '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의 개념—종교와 미신의 구별 문제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55 (2009), 261-91.
- 4) Religion 과 Superstition의 어원적 차이, 기원 및 유래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Benveniste 1999, pp. 323-324, 최화선 2001.
- 5) 본고에서 'The Evil Eye'는 의도적으로 대문자로 사용하였다. 원래의 특정 사람들의 악의적/사악한 시선/눈길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기운을 뜻하는 개념을 넘어, 특정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을 불안에 떨게 하는 불확실성이나 근심, 걱정, 우려 등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문자로 쓴 'The Evil Eye'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Evil eye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

신으로, 어떤 사람의 evil eye '사악한 눈길, 불길한 시선'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부적이나 특정한 행위, 즉 침을 뱉는 다거나 손 모양(hand gestures)을 보이면서 액운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부적으로는 눈 모양으로 된 푸른색의 나자르(Nazar) 구슬 부적이 유명하고, 뿔 모양의 부제는 소지품으로 가지고 다닌다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 evil eye를 방어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손 모양으로는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를 넣어 주먹을 쥔 모양(fig sign, la fica)과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펴고, 중지와 약지를 접어 엄지로 누른 형태인 뿔 모양의 손 모양(horned sign, le corna), 중지를 검지 위에 올린 crossed fingers가 대표적이다. e.g.) I will get my fingers crossed. (행운을 빌게요!)

- 6) 아포트로피 마법 (apotropaic magic=protective magic, 그리스어 *αποτρέπω*, *apotrépō* 에서 '방어하다') 또는 보호 마법은 불행을 피하거나 사악한 눈을 피하는 것과 같이 해로움이나 사악한 영향을 없애기 위한 마법의 한 유형이다. 아포트로피적 준수는 행운의 부적 (아마도 부적 팔찌의 일부, 토큰), 부적 또는 손가락을 꼬거나 나무를 두드리는 동작과 같이 미신이나 전통에서 벗어나 실행될 수도 있다. 역사 전반에 걸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물건과 부적이 사용되었다.
- 7) 인도에서 어린아이들의 눈가에 바르는 검은색 화장 먹(Black kohl)으로 evil eye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어적 수단이었다.
- 8) 공감적 마법(sympathetic magic)은 서로 비슷한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형이상학적 신념에 기초한다. 이 마법의 원리는 '유사성의 법칙'에 기반하며, 실제 물체의 모델이나 축소판을 사용하여 원하는 효과를 일으키려는 시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주문을 외우는 것은 공감적 마법의 사례이다.
- 9) 러시아어 *сглаз*는 글자 그대로 *с глаз* 'from eye, 눈으로부터'라는 뜻, *призор*는 '불길한 시선, 유령', *наговор* '주문, 비방', *порча* '해악', *чернота*는 검은 색과 관련된 부정적 의미로 '악의', *дурной умысел* '사악한 의도' 등의 표현들이 존재한다. *порча*는 마법적인 수단이나 방법 자체를 가리키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뜻하기도 한다. 유사어로는 *урок*, *переполох*, *прикос*, *ураз*, *призор*, *озёв/озёв*, *пристрет*, *притка/притча* 등이 있다.
- 10) *перо*는 잉크를 찍어 쓰는 '펜'의 의미도 있다. 영어의 pen도 깃털의 pennate '깃털이 있는'과 동일어근(cognate) 단어이다.

References

- 백경희 (2009). '러시아인의 미신과 징조에 대한 언어-문화적 고찰', *외국학연구*, 13 (1), 169-96. Baek, G.H. (2009). 'Reosianui misingwa jingjoe daehan eoneo-munhwajeok gochal', *Oegukhagyeongu*, 13 (1), 169-96.
- 오승철 (2009). '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의 개념—종교와 미신의 구별 문제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55, 261-91. Oh, S.C. (2009). 'Jonggyoui jayu'eseo jonggyoui gaenyeom—jonggyowa misinui gubyeol munjereul jungsimeuro—', *Jonggyoyeongu*, 55, 261-91.
- 종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Jonggyo, 'Pyojungugeodaesajeon',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최화선 (2001), '로마 공화정 말기의 "종교 Religio" 와 "미신 superstitio" 개념', *서양고전학연구*, 17, 133-54. Choe, H.S. (2001), 'Roma gonghwajeong malgiui "jonggyo Religio" wa "misin Superstitio" gaenyeom', *Seoyanggojeonhagyeongu*, 17, 133-54.
- Bartlett, R. (1999). Reflections on Paganism and Christianity in Medieval Europe. PROCEEDINGS - BRITISH ACADEMY,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Benveniste, Emile (1999), 인도·유럽사회의 제도·문화 어휘 연구, (trans.) 김현권 (I· II: 아르케). Indo·yureopsahoeui jedomunhwa eohwi yeongu, (trans.) Gimhyeongwon (I· II: Areuke).
- Berger, Allan S (2012), 'The evil eye - An ancient superstition',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1, 1098-103.
- Bernshtam, T. A. (2016). Russian folk culture and folk religion. *Russian Traditional Culture*, Routledge: 34-47.
- Boyer, P. (2007). Religion explained : The evolutionary origins of religious thought, Hachette, UK.
- Dundes, Alan (1992), The evil eye: A casebook 2: Univ of Wisconsin Press.
- Durkheim, E. (2016).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Social theory re-wired, Routledge : 52-67.
- Frazer, James George (1922), *The Golden Bough*, Springer.
- Ivanits, L. J. (2015). *Russian folk belief*, Routledge.
- Knowlson, T. S. (1934). The origins of superstitions and customs, London : TW Laurie.
- Malinowski, B. (2013).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 An account of Native Enterprise and Adventure in the Archipelagoes of Melanesian New Guinea [1922/1994], Routledge.
- Martin, D. B. (2009). Inventing Superstition: from the Hippocratics to the Christians, Harvard University Press.

-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s://www.etymonline.com/>>
 Oxford English Dictionary (2024), 'Superstition, n., Etym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Pagliarulo, Antonio (2023), *The Evil Eye: The History, Mystery, and Magic of the Quiet Curse*, Weiser Books.
- Propp, V. Y. (2012). *The Russian Folk tale by Vladimir Yakovlevich Propp*,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 Radcliffe-Brown, A. R. (2004). "The Social Anthropology of Radcliffe-Brown, *Psychology Press*, 7.
- Sedakova, I. A. (2016). "Clothes as symbolic and magic objects in Slavic childbirth customs." *Folklore: Electronic Journal of Folklore* (66): 165-174.
- Skinner, B. F. (1948). "'Superstition' in the pige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38(2): 168.
- Superstition,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s://www.etymonline.com/search?q=superstition>>
- Tsonkova, S. (2015). "Charms, Amulets, and Crisis Rites: Verbal Magic in Daily Life in Medieval and Early Modern Bulgari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 Tylor, E. B. (1871). *Primitive culture :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J. Murray.
- Vyse, S. A. (2014). *Believing in magic: The psychology of superstition-update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USA.
- Vyse, S. A. (2020). *Superstition: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논문심사일정

투고일자 : 2024. 11. 28.

심사일자 : 2024. 11. 29. ~ 2024. 12. 10.

게재확정일자 : 2024. 12. 21.

